

경북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대표 문화콘텐츠 알린다

K-IP콘텐츠관, 웹툰·드라마 등 전시물 관람·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업비즈니스관에 4개 기업 참여

경북도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APEC 정상회의 경제전시장에서 「K-IP콘텐츠관」과 도내 4개 콘텐츠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비즈니스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경북에서 발굴한 캐릭터·웹툰·영화·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선보여 경북 대표 문화콘텐츠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K-IP콘텐츠관」(첨단미래산업관)은 캐릭터존, 웹툰존, 드라마·영화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시물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경북의 전통 문화자원에 첨단 AI 기술을 접목한 창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AI 드로잉 로봇을 체험하고 있다.

의적 콘텐츠를 선보인다.

캐릭터존에서는 경북 대표 캐릭터 「엄마까투리」를 주인공으로 한 AI 기술 기반 영상 시리즈 「첨단기술을 만난 엄마까투리」 8편이 상영된다.

웹툰존에서는 안동·영천·구미 등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지역 브랜드 웹툰을 전시하고, 경북 출신 만화가 이현세 화풍의 '드로잉 로봇 체험'을 마련해 AI 기반 캐리커처를 직

접 체험할 수 있다.

드라마·영화존은 도내 주요 촬영지를 중심으로 K-드라마와 영화의 촬영 인프라, 제작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업비즈니스관」에는 콘텐츠진흥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은 조이랩(JoyLAB), 나루(NARU), 플로우스튜디오㈜(FLOW STUDIO), 더린넨2017(The

Linen 2017)으로, 각사의 독창적 콘텐츠와 기술력을 전시한다.

조이랩은 스포츠 테크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야구 타격 분석 시뮬레이터 「퍼펙션(PERFECTION)」을 선보이고, 나루는 달 모양 조형물을 활용한 수상보트 「문보트(Moon Boat)」를 전시한다. 또한 플로우스튜디오는 과학 실험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교육용 실험장비 「플로우랩(FlowLab)」을 선보이고, 더린넨2017은 경북 해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친환경 패브릭 브랜드 「해녀의 옷장(Haenye o's Closet)」을 전시한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경제전시장 참가를 통해 경북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북의 자원을 활용한 IP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고, 특화콘텐츠 개발에 힘써 경북이 K-컬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나주시

캐나다와 농수산물 수출 협약

전남 나주시가 해외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 위한 글로벌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

나주시는 캐나다 A-Mart와 500만 달러 규모의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수출 확대에 나섰다.

A-Mart 최병화 대표는 나주 출신으로 2007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아시아 식품 전문 유통업체를 설립해 현재 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완도군

할 전복 수출 꾸준히 이어져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에서 지역 대표 수산물인 할 전복 수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완도 수산물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출을 위해 지난 2020년 국내 최대 규모로 준공된 완도군 수산물 수출센터는 해협(HACCP) 시설과 수조동, 냉동·냉장실, 급속 동결실, 가공실, 홍보관 등을 갖췄다.

일본과 대만, 베트남,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 할 전복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류 시설을 확충하여 향후 수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지역밀착 금융지원 협약보증

부산신용보증재단은 하나은행과 손잡고 75억원 규모의 '부산시 지역 밀착 금융 지원 협약 보증'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보증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부산신보와 특별 출연 협약을 맺은 강서구, 동래구, 부산진구, 서구, 중구, 해운대구 등 6개 구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또는 외식업 기업이 대상이다. 최대 2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적 근거는 지난해 9월 김태호 부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다. 개정 조례로 출연 실적 우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보증 지원 우대 근거가 마련되면서, 부산신보는 기초자치단체와 금융 회사가 함께하는 다양한 보증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개소

울산 지역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잇는 통합 기반(플랫폼)이 공식 출범한다.

울산시는 28일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는 중구 백양로 160 일원 울산종합장애인복지관 내 유희부지를 활용해 지상 3층, 연면적 470㎡ 규모로 건립됐다. 상담실·행정실·교육실·자립훈련실 등을 갖췄다.

/울산=이도식 기자

전남도 무형유산 3건 새롭게 지정

소목장, 화순 능주 씻김굿, 선자장
후대 전승 기반 마련 계기 기대

전남도는 지역의 전통 기술과 예술적 전통을 계승한 소목장, 화순 능주 씻김굿, 선자장 등 3건을 전남도 무형유산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그 보유자와 보유 단체를 인정했다.

이번 지정은 급격한 산업화와 세대 단절로 사라지던 지역 무형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할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목장’은 단순한 생활기물 제작을 넘어 민족적 미감과 실용성, 장인의 철학이 결합한 전통기술로 평가된다. 보유자로 장성 설이환 씨가 인정됐다.

설이환 보유자는 오랜 기간 전통 목가구 제작 기법을 정통적으로 계승, 전남에서 가장 체계적인 전승 기반을 갖춘 장인으로 인정받았다.

‘화순능주씻김굿’은 전남내륙지역에서 유일하게 실현되는 전통 씻김굿으로, 세습무계 중심의 확고한 계보를



‘선자장’ 담양 한경치 장인.

/전남도

유지하고 있다. 정통 무속의 전형적 의례 구성과 무악(巫樂)의 예술성, 지역 공동체 신앙이 어우러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보유자로 조웅석 씨가 인정됐다.

‘선자장’의 경우 담양한경치 씨가 보유자로 인정됐다. 한경치 보유자는 40여년간 전통 합죽선 제작에 전념한 장인으로, 고 이기동 선자장으로부터 전통 기법을 정통으로 전수받아 합죽선 제작의 예술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함께 계승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덕군, 15개국 치유 전문가 한자리에

내일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 개막

전 세계 치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웰니스 산업의 장이 경북 영덕에서 펼쳐진다. 한의학부터 자연요법까지 다양한 치유 콘텐츠가 총망라된 이번 행사는 치유의 가치와 산업의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할 전망이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재)영덕문화관광재단과 경상북도한의학회가 주관하는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2025’가 오는 10월 30일 개막을 앞두고 준비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올해 행사는 인도, 일본, 프랑스 등 15개국 65명의 치유 전문가가 참여하며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축제는 ▲웰니스치유체험전과 ▲웰니스산업전 두 축으로 구성돼 웰니

스 분야 전반을 아우른다. 체험전은 의료, 생활, 자연, 음식, 문화 등 다섯 분야로 나뉘며 총 86개 부스가 마련된다. 의료치유체험전에서는 국제의료체험존을 통해 아유르베다, 중의학, 침, 추나요법, 뜰정요법 등 다양한 국가의 치유 의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생활치유 파트는 야외에서 요가, 명상, 국산도, 컬러테라피 등 심신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음식치유 코너에서는 인문힐링센터 ‘여명’의 오행건강식과 일본의 전통 꽃차 등 웰니스푸드를 제공하고, 웰니스 산업전에는 10개국 35개 기업이 참가해 아로마, 의료기기, 이너뷰티, K-한방 제품 등을 선보이며 웰니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기회를 마련했다.

/영덕(경북)=송기섭 기자 gbnews8082@

부산시교육청, 특수학급 과밀 해소 나서

3년간 총 84학급 단계적 신·증설

부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속적 증가에 맞춰 학교 간 과밀을 해소하고 통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26~2028년 향후 3년간 총 84학급 규모의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전체 학생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6221명이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2025년 7646명으로 약 23% 증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실시한 중장기 진학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해 2028학년도까지 총 84학급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해 과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산의 특수학급 수는

현재 701학급에서 2028년 785학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특수학급 배치 수요가 높은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 내 특수학급이 없는 사립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해 모든 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5년 주기의 중장기 진학 수요 전수 조사 체계 도입 ▲진학 수요 조사 기반 특수학급 설치 대상학교 사전 예고제 시행 ▲특수학급 설치 거부 ‘정당한 사유’ 기준 마련 등 책무성 강화 ▲특수학급 신·증설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신·증설 학교에는 신설교 3년, 증설교 1년 동안 ‘통합교육 여건 조성 및 교수·학습비’를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주시-봉화군, 체육대회 공동유치 박차

경북도민체전 유치추진위원 위촉식

영주시와 봉화군이 경북도민체육대회 공동 유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두 지자체는 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 수립과 지역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2027년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공동 유치를 위한 영주·봉화 유치추진위원 위촉식이 지난 27일 영주시민운동장 상설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박현국 봉화군수, 양 지자체 추진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유치추진위원회는 김경준 영주시체육회장과 박종화 봉화군체육회장이 공동회장을 맡았으며, 체육·행정 분야인사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유치 전략 수립과 실무 협의를 통해 공동 개최를 위한 협력 체계를 다지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체육대회 유치 필요성 ▲기대되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양 시군은 체육대회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공동 비전으로 ‘하나된 영주·봉화, 함께 여는 경북의 미래’를 제시했다.

/영주(경북)=송기섭 기자